

■ 회원간담회

진남 재경부 장관, 올 하반기 구조조정 효과 나타날 것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있어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일시적인 아픔은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올 1/4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부터 경제의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아울러 2001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초점은 투자와 소비심리 안정 확보에 있다.”

지난 12월 6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회원간담회에서 진남 재정경제부 장관은 「IMF 3년, 우리경제의 향후과제」라는 주제 아래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위와 같이 밝혔다.

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과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을 비롯한 광고주협회 회원 116명과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사장을 비롯한 간부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계신 진남 재경부 장관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며, 매일경제신문 사옥 이전 후 광고주협회 회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라 더욱 뜻 깊다.

회원들과 함께 매일경제신문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국민과 정부에 제대로 알리는 큰 빛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바른 정책을 정부에 제언해 주고 국민의 여론을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큰 신문이 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사장은 “매경미디어센터 개관과 함께 독자와 광고주 여러분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례했다.

간담회는 진남 재경부 장관의 강연과 회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진 장관의 「IMF 3년, 우리경제의 향후 과제」에 대한 강연 내용이다. 지면상 전제하지 못하고 요약, 정리한다.

IMF 3년, 우리경제의 향후과제

‘IMF 3년차 증후군’이란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점에 놓여있다. 과거 3년동안 우리 국민은 의지를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를 실현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구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작동 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경제시스템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둘째,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과 노동계, 언론계, 정부가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 아래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해오면서 현재 우리는 남미스타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국스타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남미국가들이 반복적으로 IMF의 지원을 받게 된 요인을 압축해 보면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스스로의 자만과 장미 빛 환상 속의 거품을 안고 있었다. 경기지표는 아주 어렵다가도 조금만 노력하면 거의 V자형으로 회복된다. 이런 일시적 현상을 경기가 되살아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둘째, 자만하고 고삐를 늦추게 되면 개혁을 하다 만 꼴이 되어 제2, 제3의 환란 위험이 있게 된다.

셋째,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경제는 3년쯤 되면 여러 가지 선거가 있게 마련이다.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끌려 다니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본보다는 유권자만을 생각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남미의 경험이다.

넷째,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여러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었고, 국제적인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반면 영국의 경우 대처수상은 유권자들의 인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든 영국을 살리고 영국민의 자존심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괄된 정책을 유지했다. 그렇기에 당시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뒤를 이은 메이저 수상도 같은 라인의 정책을 일관했으며, 지금의 토니 블레어 수상 또한 기본적인 정책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개혁의 노력은 최소한 10년은 지속해야 시스템은 물론 국민의 사고, 행동양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한 국가는 지금 튼튼한 경제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는 4대 개혁 중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시스템

변화의 기본 틀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거시경제는 4/4분기부터 둔화되고 있다. 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던 것도 개혁의 움직임이 주춤거리게 했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목표는 어떻게 하면 5-6%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다.

2001년 1/4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상반기까지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노력을 계획대로 성공시킨다면 2001년 봄부터 심리적으로 경제생활에 대한 비전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튼튼해진 시스템과 체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도록 정책을 써야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왜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부터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요인은 첫째로 동절기 이후로 국제유가가 상당부분 안정될 예상이며, 둘째, 반도체 시장 또한 수요기반을 다져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셋째, 미국 대선의 결과가 1/4분기를 기점으로 확실한 리더십을 다져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외부요건에 더하여 현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2001년 봄을 계기로 해서 점차 나타나기 시작해 제대로 작동 가능한 금융시스템이 복원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은 물론 하반기부터 경제가 정상속도의 시스템과 저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현재 이를 위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001년 경제 정책운용계획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투자와 소비 심리적 안정이다. 물론 그 전에 필수적 전제 조건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한마디로 경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엔돌핀이 많이 솟게 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6개월이 개혁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3개월, 길어야 6월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남미형이나 영국형이나 아니면 그 중간 어디냐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원칙은 분명히 그러나 대화는 끈질기게 해나 갈 것이다. 경영자든 노동계든 구조조정의 일시적 아픔은 있겠지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가지고 보완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쟁점이다.

정리·이수지